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시장상인으로부터 수산물들을 구입하고 있다. /연남뉴스

新 여권 핵심 '3鄭' 주목

〈정몽준·정운찬·정정길〉

■정몽준 최고위원 정계 인맥 살펴보니

이홍구·한승주와 각별...아산정책연구원 '싱크탱크'로 대부분 무소속 '나홀로 정치 활동' 당내 입지는 취약

차기 대선 주자군 중 한 명인 정몽준 최고위원이 여당인 한나라당의 대표를 맡으면서 그의 마당발 인맥이 다시 주목을 끌고 있다. 정 대표는 국제축구연맹(FIFA) 부회장, 국회 한미의원외교협회 회장, 현대중공업 대주주 등 유력한 경제인, 체육인, 외교통으로서 국내외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학교를 매개로 한 신(新)여권 핵심 '정몽준-정운찬-정정길 3鄭'의 인연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정 대표는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서울대 경제학과 4년 후배다. 또 정 후보자가 70년대 중후반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조교수로 재직할 때 정 대표는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수학했다.

정정길 대통령실장과는 '울산인맥'으로 엮여있다. 울산대 총장이었던 정 실장은 작년 대통령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울산대(현대학원) 이사장인 정 대표에게 '대통령실장 제의' 사실을 사전에 알려준 것으로 전해진다.

당내 대선 후보 경쟁자인 박근혜 전 대표와는 장충초등학교 동기동창이다. 막역한 친구 사이는 아니지만, 정 대표가

초·재선 의원 시절 박 전 대표와 자주 어울려 테니스를 치기도 했다고 한다.

이와 함께 정 최고위원은 정치권 외곽에서 이홍구 전 총리와 한승주 전 외무장관을 중심으로 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2002년 대선 당시 정몽준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던 이홍구 전 총리는 현재도 정 대표의 정치적 후견인 겸 조언자로 자리하고 있고, 한승주 전 장관은 정 대표가 설립한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2022년 월드컵축구 유치위원장을 맡아 정 대표와 각별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원과 '해밀을 찾는 소망'은 정 대표의 싱크탱크가 될 전망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를 목표로 설립된 아산정책연구원은 올 연말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며, '해밀을 찾는 소망'은 정치인 정몽준의 정치·정책활동을 보좌하는 기능을 수행 중이다.

정 대표는 다만, 지난 21년 의정 활동 대부분을 '무소속'으로 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인맥이 빈약한 것이 약점으로 분석된다. 특히 한나라당 내에 정몽준 계보로 불릴 수 있는 의원이 희박한 상황이다. 계보로 분류하기 힘들지만 정 대표로부터 지역구(울산 동구)를 물려받은 안효대 의원, 현대건설에서 근무한 신영수 의원, 처

조카 사위인 홍정욱 의원, 2002년 대선 당시 국민통합21에서 호흡을 맞춘 전여욱 의원 등이 비교적 정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정 대표는 입당한 지 불과 1년 10개월밖에 안 되는 기간 동안 당내 170명 가량의 의원 대부분과 한 차례 이상 식사자리를 갖는 등 인간적 유대 관계를 넓혀왔다. 혈혈단신 한나라당에 입성한 정 대표가 당에 정착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정 대표의 한 측근은 8일 "정 대표가 계파 정치의 타파를 내세우고 있는 만큼 이른바 '정몽준 계보'를 인위적으로 만들지는 않았지만, 동료 의원으로서 교분을 넓혀온 것은 사실"이라며 "앞으로도 계파를 내세운 정치보다는 국민을 보고 하는 정치를 통해 동료의원들과 공감대를 형성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몽준 대표 비서실장에

'보성 출신' 정양석 의원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 비서실장에 보성 출신의 정양석 의원(서울 강북갑)이 임명됐다.

조선인 정 의원은 광주 살레시오고교 전담대를 졸업했으며 한나라당 의원국장, 기획조정국장, 수석 부대변인, 원내부대표 등을 지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신종플루, 의연한 대처를



김형호

사회 1부 기자

8일 오전 광주기독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한 시민들은 똑같은 백신 접종비용에 대한 불만보다는 '예방접종을 해서 다행'이라는 표정이었다. 신종플루 여파로 늘어난 계절 독감백신 수요를 공급이 따르지 못해 독감백신은 접종비가 지난해에 비해 50~80%까지 올랐다.

광주·전남지역 병·의원에 독감백신을 판매하는 광주 모 의료업체 관계자는 "공급이 줄었다기 보다는 신종플루 여파로 불안을 느낀 시민들의 수요가 크게 늘어 백신 품귀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광주 모 병원 관계자도 "해마다 독감이나 유행성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몇 명인데 이렇게 부산을 떠는지 모르겠다"며 "계절 독감백신과 신종플루가 직접 관련도 없는데 서로 맞으려고 줄을 서고 있다"고 밝혔다.

비단 계절 독감백신뿐만이 아니다. 순간체온계나 마스크 등 신종플루와 관련된 물품들이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신종플루에 대한 막연한 공포'가 실생활에 급속히 번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이용하려는 알뜰한 상흔도 고개를 드는 등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최근 기자의 휴대전화에 광주 모 백화점에 입점한 건강식품 업체로부터 문자메시지가 왔다.

"신종플루 전염을 막는데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 좋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이쯤 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식약청은 지난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신종인플루엔자'에 대한 국민 불안심리에 편승해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식품의 허위·과대 광고를 무기한 집중 단속할 것"이라며 "현재까지 특정 식품이 신종인플루엔자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바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신종 플루에 걸린다고 무조건 사망하는 게 아니다"면서 "정부가 신종플루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신종플루가 당사 사망률이 높은 치명적인 질환이기 보다는 지속적으로 유행할 경우 바이러스에 변화가 일어나 위험성이 높은 바이러스로 변해 사망률이 더 높아질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건강식품이나 공인되지 않은 신종플루 예방법을 찾기보다는 손을 자주 씻고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가정병원을 찾아 진찰을 받는 등 기본적인 보건위생 수칙에 충실하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신종플루가 주는 막연한 공포는 더욱 확산될 조짐이다. 그렇다고 신종플루가 위험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다. 관(官)은 물론 시민들도 좀 더 의연하게 신종플루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khh@kwangju.co.kr

광주시 등 지역 27개 공공기관 내년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시범 실시

광주시와 광주 지역 공공기관들이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이 사업은 공공기관 별로 연료, 전기·가스 사용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배출량 초과분과 감축분을 거래하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위해 연말까지 환경부 지원을 받아 온실가스 최적 관리시스템과 배출권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범거래를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광주시를 비롯해 산하기관, 기초단체, 교육청 및 산하기관,

경찰서 등 모두 27개 공공기관이다.

시범거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관이 목표량에 미달한 기관에 탄소배출권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참여 기관들은 기존 연도 평균 대비 5%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달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받는다.

광주시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미리 경험을 쌓고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군 감사, 처벌보다 행정지도"

전남도, 감사 개선키로

전남도가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감사의 주기와 기간을 축소하고, 위법·부당 사례의 적발·처벌보다는 행정지도와 제도개선을 유도하는 '도와주는' 감사로 전환하는 등 감사방법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최근 각 시·군의 예산 조기집행 등 업무 가중과 중앙부처 감사, 도 종합감사 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그동안 시·군별로 2년 주기로 실시해오던 감사를 2~3년 주기

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또 감사기간도 시 단위는 10일에서 7일로, 군 단위는 8일에서 5일로 조정해 주요 사무에 대한 선택적 집중감사를 하기로 했다. 특히 비리의 개연성이 높은 사회복지, 인허가, 계약업무 등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기획·테마감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것은 물론 시·정·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에 알려 미리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로 했다.

감사 주기와 감사 기간 조정에 따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언론 보

도와 민원 제도, 부조리 신고방, 공익신고 보상제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으며,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공직비리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재철 전남도 감사관은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처벌하기 위한 사후적 감사를 지양하고, 대신 예방위주의 사전적 감사와 제도개선을 위한 사후적 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며 "특히 행정지도와 제도개선을 통해 예방적 감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아이엘리시아' (AIELISIA) eye clinic.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woman's face and text in Korean. It includes the clinic's name, address (111-1, Haeinsa-ro, Yuseong-gu, Daejeon), phone number (02-671-1199), and a website (www.aielisia.com). There are also smaller images of people and text describing services.

Advertisement for YHB (Yongin Housing Bank). The ad features a large image of a modern apartment building and text in Korean. It includes the bank's name,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There are also smaller images of people and text describing services.